

## 유아의 자부심과 수치심이 또래놀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일상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Effects of Pride and Shame on Interactive Peer Play of Young Childre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Their Daily Stress

최송이<sup>1</sup> 신나리<sup>2</sup>

Song Yi Choi<sup>1</sup> Nary Shin<sup>2</sup>

###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hildren's pride and shame on their interactive peer play, mediated by their daily stress.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72 five-year-old children (80 boys and 92 girls) attending kindergartens or child-care centers in Chungbuk, Korea.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and correlational analyse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SPSS 19.0 and AMOS 21.0.

**Results:** Children's shame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their interactive peer play, including play-disruption, play-disconnection and play-interactions, mediated by daily stress; children's shame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play interaction. However, children's pride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daily stress and an indirect effect on their interactive peer play. In other words, high levels of shame among children led to high perceived daily stress. In turn, perceived daily stress increased play-disconnection and play-disruption, while it decreased play-interactions. Meanwhile children's shame led to a low level of play-interaction among young children.

**Conclusion/Implications:** The results imply that children's perceived shame would influence their behaviors in social contexts as well as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such as the level of daily stress.

**key words** interactive peer play, pride, shame, daily stress

\* 본 연구는 2016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의 포스터 발표논문임.

\*\* 본 연구는 2016년도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1 제1저자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청사어린이집 교사

#### 2 교신저자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e-mail : binah2009@cbnu.ac.kr)

## I. 서론

최초의 환경인 가정에서 사회화를 시작하는 영아는 유아기에 이르러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더 넓은 사회적 환경으로 사회화 맥락을 확장한다. 이에 따라 가족이라는 인적환경을 벗어나 또래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맺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 시기 경험하는 또래와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은 건강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기초가 되어, 이후 성장·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또래와의 경험을 통해 얻은 사회적 지식과 기술은 이후 유아가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인 문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해결 방법에 해당하므로, 또래와의 적절한 상호작용은 사회적 유능성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Raver & Zigler, 1997). 즉, 유아가 다양한 또래상호작용을 통해 효과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은, 향후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놀이 맥락은 유아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행동 전략 및 기술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Fromberg, 2002), 긍정적, 부정적 상호작용 모두를 빈번하게 경험하는 환경이므로(최혜영, 이은혜, 2005),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하면서도 중요한 맥락이다(최혜영, 신혜영, 2011). 이에 또래와 놀이하는 장면에서의 행동 평가를 통해 개별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의 특성과 수준을 가늠하는 것은 타당하면서도 의미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Fantuzzo 등 (1995)이 놀이 맥락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 교사용 또래놀이행동 평가척도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를 개발한 이후, 다수의 연구자들은 놀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유아 간 상호작용의 특성과 이를 통한 사회화 경험에 주목하여 왔다. 그 결과 놀이 시 또래 간 상호작용을 지속하는 긍정적 행동을 빈번하게 하는 유아는 일과 중 다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타인과의 관계에 협력적이며, 교사의 지시에 대해 긍정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영, 2000; 이원영, 손은애, 2006; Coolahan, Fantuzzo, Mendez, & McDermott, 2000). 반면 또래와의 상호작용 시 위축 정도가 심하여 놀이를 시작하지 못하거나 또래와의 놀이 지속을 어려워하고 갈등을 야기시키는 부정적 행동을 보이는 유아는 놀이 이외의 맥락에서도 공격적이고 불안한 행동, 과잉행동이나 산만한 행동 특성을 보였으며(Bohnert, Crnic, & Lim, 2003; Fantuzzo & Mcwayne, 2002), 학급 내 문제행동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황윤세, 2011).

이러한 또래놀이상호작용은 개별 유아의 기질적인 특성 또는 심리적인 적응 수준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데, 최근 들어 유아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놀이 중 또래 간 상호작용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아의 스트레스와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유아의 스트레스 수준이 사회적 관계 내에서의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관되게 밝혀지고 있다(김지현, 박경자, 2006; 송정아, 이양희, 2004). 즉, 유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놀이행동 특성은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놀이를 방해하거나 위축 행동으로 인해 놀이상호작용을 단절시키는 것인데, 유아가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이러한 부정적인 또래놀이 행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유아가 기관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매일의 스트레스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유아기 스트레스에 관한 초기 연구들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전이적 사건 혹은 중대한 삶의 사건에 집중한 것과는 달리, 오히려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신체 및 심리적 건강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Crnic & Greenberg, 1990).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이 적극적인 또래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환경은 가정과는 전혀 다른 규칙과 생활 방식을 요구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자체가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박윤조, 송하나, 2008). 일례로 유아를 대상으로 코티솔 추이를 광범위하게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하루 중 오전의 분비 수준이 높고 오후에

들어서면 점차 낮아지는 일반적인 주기적 패턴(Kirschbaum et al., 1990)과는 달리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이용 유아는 오전에 비해 오후의 코티솔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eoffroy, Cote, Parent, & Seguin, 2006; Vermeer & van Ijzendoorn, 2006). 따라서 유아가 겪는 다양한 종류의 일상적 갈등 상황은 스트레스 상황에 반복적으로 유아가 빈번하게 노출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만약 유아가 이러한 일상적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신체적·언어적으로 표현되는 공격적인 행동부터 불안, 공포, 수줍음 등과 같이 정서적인 반응 등을 표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또래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한편, Lazarus와 Folkman(1984)는 스트레스란 환경과 사건 자체가 아닌 이에 대한 개인의 해석과 평가에 기초한 것으로 보았다. 즉, 스트레스는 객관적 자극 그 자체라기보다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한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스트레스원에 대해서도 이를 경험하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와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조희숙, 권미주, 2002). 이는 동일한 강도의 스트레스 사건이라도 유아의 정서적 능력이나 상태에 따라 스트레스원에 대한 행동이나 태도가 다른 수준과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서란 인간이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 경험하거나 생각할 때 발생하는 복잡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1세 미만의 생애 초기부터 기쁨, 분노, 슬픔 및 두려움의 기본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stelnik, Whiren, Soderman, & Gregory, 2009). 이러한 기본정서를 흔히 일차정서라고 칭하는데, 영유아기를 거치면서 처음 출현하였던 일차정서는 애정, 좌절, 놀람, 불안함, 경멸 등의 정서로 분화되어 기본정서에 해당하는 정서군으로 발달하게 된다. 그간 영유아기의 정서발달연구는 유아가 자신의 일차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한 방식과 수준으로 조절하며,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지에 대해 정서지능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수행되어 왔다. 반면 유아의 자기인식 및 행위에 대한 자기평가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최근 일차정서뿐 아니라 일차적 감정이나 사고에 대한 반응들로 이루어진 이차정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Tangney & Dearing, 2002).

흔히 자의식 정서(self-conscious emotion)로도 일컬어지는 이차정서는 일차정서의 출현 및 발달 이후에 분화되어 나타나는 정서로, 자아에 대한 인식, 자기행동에 대한 평가, 사회적인 규범 습득 및 도덕성 발달 등 복잡한 인지능력 및 학습을 필요로 한다(Lewis, Alessandri, & Sullivan, 1992). 즉, 이차정서인 자의식 정서는 자신의 행동이나 성취를 대인관계 맥락에서 형성된 수행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할 때 생기는 것으로(김정민, 유안진, 2003; Tangney & Dearing, 2002). 유아가 경험하는 대표적인 자의식 정서는 긍정적 정서인 자부심과 부정적 정서인 수치심을 들 수 있다. 자기 자신과 관련한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부심과 수치심은 한명의 인간으로서 자아를 확립하고, 자존감을 증진시키며, 적절한 수준으로 대인관계를 맺는데 영향을 미친다(Tracy & Robins,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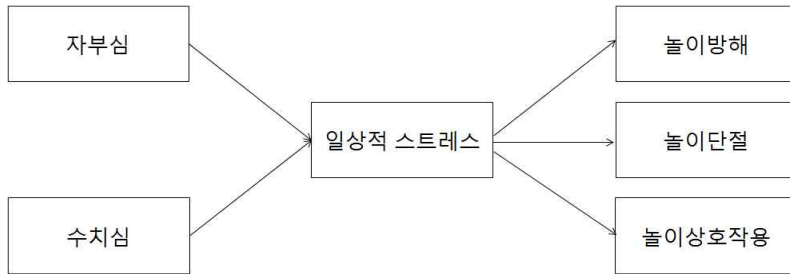
선행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자의식 정서인 자부심은 자기확신이나 성취에 대한 높은 자기평가를 기반으로 하므로(Ashton-James & Tracy, 2012), 공감이나 자기조절과 같은 사회적 유능감에 기여하며(한세영, 2015; Tracy & Robins, 2004, 2007), 또래 및 동료와의 관계에서 우월한 사회적 지위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eng, Tracy, & Joseph, 2010). 이러한 경향은 아동에게도 일

관되게 나타나, 어린 유아들도 이차정서인 타인의 자부심을 인식할 수 있으며(Tracy, Robins, & Lagattuta, 2005), 자신의 인종이나 장애여부와 같은 가시적인 특성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 경우 집단에서 보다 유능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Guralnick & Groom, 1987; Verkuyten, 2002). 한편 부정적 자의식 정서인 수치심은 개인의 부적응과 큰 관련이 있다(Tangney & Dearing, 2002). 즉, 과실이 발생했을 때 실제 행위에 초점을 두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죄책감과 달리 수치심은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자기 자신(self)이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유경, 민경환, 2002), 위축과 같은 심리적인 부적응뿐만 아니라 공격성 등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일관되게 밝혀지고 있다(김평화, 윤혜미, 2014; 임혜은, 한세영, 2016; Thomaes, Stegge, & Olthof, 2007). 따라서 대인관계 맥락에서의 자신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유아의 자부심과 수치심 수준은 주요 사회적 관계인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더욱이 자부심과 수치심은 또래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스트레스가 압도적이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 아닌 발생한 사건을 스트레스로 지각하는 지가 중요하므로(Kostelnik et al., 2009), 유사한 유형이나 수준의 스트레스원은 각 개인에게 다른 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차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유아의 정서적 특성이 주목받아 왔는데, 이는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가 스트레스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처리하는데 관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심리적 특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Mason(1971, 1975; Krohne에서 재인용, 2002)의 주장 이후 정서가 스트레스 지각에 핵심적 기제임이 지속적으로 지지되어 왔기 때문이다(조희숙, 권미주, 2002; Mayer & Salovey, 1997; Salovey, Stroud, Woolery, & Epel, 2002). 특히 이차정서인 자의식 정서 또한 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박지현, 2014), 유아기 이차정서에 대한 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유아 대상의 해당 경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유아기에 급속하게 발달하기 시작하는 자부심과 수치심에 따라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이 달라지고 그로 인한 결과가 또래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의식 정서인 자부심과 수치심이 일상적 스트레스를 통해 또래놀이행동에 이르는 경로를 검증함으로써, 유아의 자부심과 수치심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 일상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단, 복합적인 인지능력을 요구하는 자의식 정서의 표현능력은 만 3세에서 만 4세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지만(Stipek, Recchia, & McClintic, 1992), 만 3세에서 만 4세 사이 유아들이 자부심과 수치심에 대한 표현 능력이 충분할 지라도 유아의 개인적인 기질이나 발달 차이에 따라 그 표현력은 느리거나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유아의 자의식 정서의 표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만 5세 유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목적들을 위해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이를 도식화한 연구모형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 만5세 유아가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는 자의식 정서인 자부심과 수치심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그림 1] 유아의 자부심과 수치심이 일상적 스트레스를 통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모형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북도 소재 유치원 5개원과 어린이집 18개원의 만5세반에 재원 중인 유아 172명과 이들을 담당하는 담임교사 23명이었다. 다음의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성별은 전체 172명 가운데 여아가 53.5%로 남아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출생순위는 첫째가 반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44.8%), 둘째, 셋째이상, 외동의 수준으로 보고되어, 첫째와 둘째인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외동아의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아버지에 관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40.0세( $SD = 4.59$ )이며, 학력은 대졸 이상이 과반을 차지한 반면 고졸보다 전문대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 생산근로직 및 단순노무직, 판매서비스직, 전문직, 관리직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어머니는 평균 연령이 36.84세( $SD = 3.66$ )이었으며, 학력은 아버지와 유사하게 대졸, 고졸, 전문대졸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인 경우가 전체 35.7%였으며, 사무직과 전문직, 생산근로직 및 단순노무직이 비슷한 수준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대체로 고른 비율을 보였으며, 300만원 미만이 27.9%인 반면 500만원 이상이 30.8%로 보고되어 가구별 편차가 매우 큼을 시사하였다.

### 2. 측정도구

#### 1) 자의식 정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의식 정서 중 자부심과 수치심 수준의 측정은 Geppert, Schmidt 그리고 Galinowski(1997)이 개발한 Self-evaluative Emotions Coding System(SEECS)를 기초로 Belsky, Domitrovich 그리고 Crnic(1997)이 일부 수정하고, 김정민과 유안진(2003)이 우리나라 유아를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관찰 기준을 사용하여, 일대일 면접을 통한 과제 수행으로 이루어졌다. 구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172)

특성		빈도(%)	특성		빈도(%)
유아			어머니		
성별	남아	80(46.5)	연령	34세 이하	35(20.6)
	여아	92(53.5)		35세~39세	94(55.3)
출생순위	외동	13( 7.6)		40세 이상	41(23.8)
	첫째	77(44.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4(32.3)
	둘째	63(36.6)		전문대 졸업	45(26.2)
	셋째이상	19(11.0)		대학교 졸업 이상	68(40.7)
아버지			직업		
연령	39세 이하	85(49.7)	직업	전업주부	61(35.7)
	40세~44세	55(32.0)		사무직	37(21.6)
	45세 이상	31(18.0)		관리직	2( 1.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2(24.9)		전문직	27(15.8)
	전문대 졸업	34(20.1)	판매서비스직	7( 4.1)	
	대학교 졸업 이상	93(55.0)	생산근로직/단순노무직	23(13.5)	
직업	사무직	37.8(38.0)	기타	14( 8.2)	
	관리직	8( 4.7)	가구		
	전문직	25(14.6)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48(27.9)	
	판매서비스직	26(15.2)	300만원~400만원 미만	37(21.5)	
	생산근로직/단순노무직	41(24.0)	400만원~500만원 미만	34(19.8)	
기타/무직	6( 3.5)	500만원 이상	53(30.8)		

체적인 과제 수행 절차는 유아에게 성공과 실패 반응이 유발되는 과제를 제시한 후, 성공했을 때에 자부심 수준을 실패했을 때 수치심 수준을 유아의 얼굴 표정, 몸짓 그리고 언어적인 표현에 기초하여 훈련된 관찰자가 평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자부심에 해당하는 얼굴표정과 행동표현 및 언어표현은 각각 입을 벌리고 크게 웃는 것, 몸이나 팔을 흔들거나 손뼉을 치는 것, “내가 했어요.”와 같이 자랑스럽게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반면 수치심에 해당하는 얼굴표정은 축스러운 미소를 크게 지으며 혀나 입 주변을 움직이는 것, 행동표현은 고개를 돌리거나 손이나 팔로 얼굴의 한 부분을 감싸는 행동, 언어표현에는 “내가 못 했어요.” 또는 힘없이 결과에 말하거나 변명하기, “난 바보야.”와 같이 부정적인 자기 평가의 말을 하는 것이 해당한다.

자부심과 수치심의 하위 범주는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범주별로 행동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표현 행동의 출현유무, 지속시간과 강도를 조합하여 측정 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자부심의 경우 유아가 얻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12점이며 최저 점수는 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부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수치심의 경우 유아가 얻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14점이며 최저 점수는 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치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사용된 과제는 한국판 웨슬러 유아지능검사(Korean Wechsler Pre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K-WPPSI) 3판의 소검사 중 ‘토막짜기’ 과제를 이용해 성공 후 자부심 수준을 측정하였고, ‘미로’ 과제를 이용해 실패 후 수치심 수준을 측정하였다. 과제의 순서는 하유미(1998)의 연구 절차를 참고하여

자부심 수준의 측정을 위해 ‘토막짜기’ 과제에서 2번의 성공을, 수치심 수준의 측정을 위해 ‘미로’ 과제에서 2번의 실패를 경험하였으며, 긍정적 경험으로 과제 수행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성공 경험인 처치문항을 추가했다. 결과적으로 과제 제시는 라포 형성용 과제-성공 과제-성공 과제-실패 과제-실패 과제-성공 과제의 순서로 총 6개 과제가 실시되었다.

## 2) 일상적 스트레스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가 생활하면서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Burts, Hart, Charlesworth 그리고 Kirk(1990)가 제작한 Class Child Stress Behavior Instrument (CCSBI) 를 고희정(1997)이 번안·수정하고, 김윤희(2003)가 재구성한 ‘유아용 일상적 스트레스 행동 척도’를 사용했다.

CCSBI는 담임교사가 유아의 기관 생활에서 보이는 행동을 관찰하여 평정하는 Likert 5점 척도(1점 = 매우 아니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제작된 도구로, ‘이 아이는 초점없는 표정을 짓거나 몽상에 자주 잠긴다’와 같은 소극적 스트레스 행동(8문항)과 ‘이 아이는 이갈기, 입술 물어뜯기, 물건 빨기 등 입장난을 자주 한다’와 같은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낮은 요인부하량으로 인해 누락되는 문항은 없었지만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어, 소극적 스트레스 수준과 적극적 스트레스 수준의 총합을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행동 수준으로 보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도구의 내적합치도를 살펴본 결과, Cronbach’s  $\alpha$ 는 .96로 산출되어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3) 또래놀이행동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은 Fantuzzo 등(1995, 1998)이 제작 및 수정·보완한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PIPPS)를 최혜영과 신혜영(2011)이 한국 유아를 대상으로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한 ‘또래놀이행동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놀이상호작용(9문항), 놀이단절(8문항), 놀이방해(13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임교사가 평정하는 Likert 4점 척도로 제작되었다(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 매우 그렇다). 하위차원별 대표 문항은 ‘친구와 놀이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며 말한다’(놀이상호작용), ‘목적 없이 어슬렁거린다’(놀이단절), ‘친구의 물건이나 놀이감을 부순다’(놀이방해) 등을 들 수 있다. 요인분석 결과 원 도구와 동일하게 3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나, 놀이방해에 해당하는 19번 문항(놀이에 초대 받았을 때 거절한다)이 어느 요인에도 적재되지 않아, 해당 문항을 제외한 총 29개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Cronbach’s  $\alpha$ 는 놀이상호작용이 .94, 놀이단절 .89, 놀이방해 .95로 산출되어 하위차원별 문항들이 동일한 구인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조사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세 차례의 예비조사와 관찰자 훈련 및 신뢰도 검증이 실시되었다. 먼저 자의식 정서의 측정을 위한 과제를 선정하고 절차를 검토하기 위한 1차 예비조사는 2015년

6월 26일과 2015년 7월 3일 충북 소재 유치원의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차 예비조사에서는 연구자가 선정한 과제 중 적절한 흥미도와 반응이 유발되는 과제를 최종적으로 선별하고자 실시하였다. 2차 예비조사에서는 1차 예비조사를 통해 선정된 과제의 난이도 및 전반적인 과제 수행 절차를 점검해 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2차 예비조사 결과 유아들의 평균 과제 수행시간은 평균 6분 51초였으며, 실험 절차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2차 예비조사 실시 후 자부심과 수치심 수준 평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본 연구자와 아동학 전공의 대학원생 1인이 관찰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1차 훈련은 과제 제시 도구와 방법, 실험절차, 자부심과 수치심 표현의 일관된 측정을 위한 얼굴표정, 목소리의 높낮이, 행동 출현 유무의 판단 방식에 대해 논의 하였다. 2차 훈련에서는 본 연구자의 과제 제시 절차를 보조 연구자가 관찰하고,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점검한 뒤 본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가 함께 10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과제를 실시하였으며, 자부심과 수치심 수준의 총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정자간 신뢰도는 자부심이 .91, 수치심이 .97이었다.

3차 예비조사는 교사용 질문지에 대한 문항 적합도와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2015년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아동학 전공의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현직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전반적인 응답 시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적극적 스트레스 문항 중 사용된 ‘수음’이라는 용어가 ‘자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와 이를 반영하여 사용하였다.

본조사는 2015년 7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시되었다. 임의선정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연구 참여에 동의한 만5세반 교사의 학급 가정에 연구 안내문과 동의서가 총 377부 배부되었고, 각 가정에 배포된 동의서는 247부가 회수되어 총 65.51%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들 유아에 대해 담임교사가 설문조사에 응답하였고, 각 기관의 조용한 장소에서 본 연구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검사가 실시되었다. 모든 검사는 구두로 유아에게 간단한 소개와 참여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검사 당일 결석하거나 검사 참여에 유아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교사의 응답이 무성의한 경우를 제외하여 총 172명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sup>1)</sup>

####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주요변인의 기술적 통계 특성을 알아보고,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신뢰도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자의식 정서인 자부심과 수치심이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또래놀이행동의 하위 요인인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놀이방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AMOS 21.0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하였다.

1) 본조사가 실시된 기간은 메르스로 인해 휴원 기관 및 결석 유아의 수가 전례 없이 많아, 동의서가 배포된 가정 수에 비해 최종 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가 현저하게 적음.



### Ⅲ. 결과 및 해석

#### 1. 주요 변인의 기술적 통계 및 상관

본 분석에 앞서, 유아의 자의식 정서인 자부심과 수치심, 일상적 스트레스, 또래상호작용 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과제 수행 과정에서 평정된 유아의 자부심과 수치심의 합산 점수는 각각 3.55와 3.53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자부심의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더 커서, 자부심에 있어서 유아의 개인차가 수치심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적 스트레스의 평균은 보통 수준인 3점을 밑도는 1.87로, 유아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또한 놀이상호작용은 보통 수준인 반면, 놀이단절과 놀이방해는 2점을 밑돌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변수들 간의 상관은 직접경로를 가정한 변인들 간에 유의하게 산출되었으며, 분산팽창계수인 VIF값 또한 최소 1.14에서 최대 2.70의 범위로 3미만의 값을 가지고 있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수집된 주요 변인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2. 유아의 자부심과 수치심이 일상적 스트레스와 또래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설정된 연구분석 모형이 적합한 모형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인  $\chi^2$  검정, CFI, NFI, TLI, RMSEA 및 Standardized RMR(SRMR)를 근거로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단, 또래놀이행동인 놀이방해, 놀이단절 및 놀이상호작용은 긍정적인 행동특성과 부정적인 행동특성을 포함하므로, 잠재변인으로 모형에 포함하는 경우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 하위차

<표 2>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및 상관관계 (N = 172)

구분	자부심	수치심	일상적 스트레스	놀이방해	놀이단절	놀이상호작용
자부심	1.00					
수치심	.31***	1.00				
일상적 스트레스	.15*	.27***	1.00			
놀이방해	.20**	.27***	.76***	1.00		
놀이단절	-.15	.06	.54***	.44***	1.00	
놀이상호작용	.09	-.23**	-.46***	-.46***	-.43***	1.00
M	3.55	3.53	1.87	1.86	1.56	3.05
SD	2.64	1.87	.69	.64	.62	.51

\*\* $p < .01$ , \*\*\* $p < .001$ .

주. 일상적 스트레스는 5점 척도, 놀이방해, 놀이단절 및 놀이상호작용은 4점 척도에 해당함.

원을 관찰변수로 간주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동일한 척도로 함께 응답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세 또래놀이행동의 하위차원 간 변별타당도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산출되어, 세 관측변인 간의 측정오차 간 공분산을 가정하여 모형을 가정하였다.

또래놀이상호작용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정을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산출한 결과,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 = .973, NFI = .955, TLI = .932, SRMR = .046로 적절한 수준이었으나  $\chi^2/df$ 이 2.311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MSEA 또한 .088로 밝혀져, 일부 지표에서 한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표 3> 참조). 이에 초기 연구모형에서는 가정되지 않았던 경로 중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I) 검토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경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치심으로부터 놀이상호작용으로의 직접경로와 수치심과 놀이상호작용의 측정오차 간의 공분산이 모형을 개선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경로로 제시되었다. 이 두 경로를 모두 수정모형에 포함하는 경우 모형의 식별(model identification)이 불가능하므로, 이 두 경로 중 이론적 수준에서 논의가 가능한 경로 추가가 수정지수에 근거한 모형 개선 시 적절하다는 김주환, 김민규 그리고 홍세희(2009)의 제언에 근거하여, 수치심이 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가정하는 직접 경로만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chi^2/df$  값이 2.026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p = .072$ ), CFI, NFI 및 TLI는 각각 .983, .961, .964로 개선되었고, SRMR 또한 .037로 낮아졌다. 특히 RMSEA = .064로 낮아서, 여전히 우수한 수준인 .05 이하의 기준을 만족하지는 못하였으나, 수용가능한 수준인 .07의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이로써, 초기 연구모형에서 가정한 완전매개 모형은 부분매개 모형으로 수정되었다. 추가적으로 수정된 모형의 수정지수를 재확인한 결과, 수정지수에 해당하는 경로의 추가로 감소되는  $\chi^2$ 의 값이 자유도 1에서 유의미한 경우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정된 모형을 자료를 가장 잘 반영하는 모형으로 보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치심에서 놀이상호작용으로의 경로가 추가된 이후 초기 모형의 계수 중 놀이상호작용과 관련된 계수가 다소 변화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각 경로의 방향 및 유의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그림 2]에는 수정된 최종모형에 포함된 경로의 계수와 이들 경로를 도식화한 결과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자의식 정서인 자부심과 수치심 중 수치심 수준이 높을수록 이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 또한 높아졌으나, 유아의 자부심 수준은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한편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와의 놀이방해와 놀이단절 수준은 높아지는 반면 놀이상호작용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의 수치심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분	$\chi^2$	df	$\chi^2/df$	CFI	NFI	TLI	RMSEA	SRMR
초기모형	13.865	6	2.311*	.973	.955	.932	.088	.046
수정모형	10.128	5	2.026	.983	.961	.964	.064	.037

\* $p < .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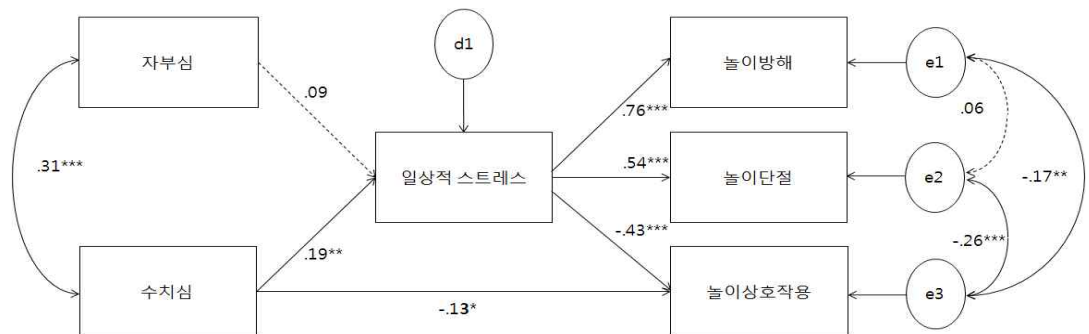
<표 4> 연구모형의 경로별 계수

경로	초기모형		수정모형	
	Estimates	C.R.	Estimates	C.R.
자부심 → 일상적 스트레스	.09	1.10	.09	1.10
수치심 → 일상적 스트레스	.19*	2.45	.19**	2.45
일상적 스트레스 → 놀이방해	.76***	15.30	.76***	15.30
일상적 스트레스 → 놀이단절	.54***	8.35	.54***	8.35
일상적 스트레스 → 놀이상호작용	-.46***	-6.82	-.43***	-6.33
수치심 → 놀이상호작용	-	-	-.13*	-1.98
자부심 ↔ 수치심	.31***	3.92	.31***	3.92
ε놀이방해 ↔ ε놀이단절	.06	.77	.06	.77
ε놀이방해 ↔ ε놀이상호작용	-.19*	-2.49	-.17**	-2.22
ε놀이단절 ↔ ε놀이상호작용	-.24**	-3.10	-.26***	-3.26

\* $p < .05$ , \*\* $p < .01$ , \*\*\* $p < .001$ .

은 놀이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유아의 수치심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와의 놀이상호작용 수준은 낮아지며, 이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도 높아져 결과적으로 또래와의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이 빈번해지는 반면 놀이상호작용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부트스트랩 방식(Bootstrapping methods)을 이용하여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수치심이 일상적 스트레스를 통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치심이 놀이방해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5, 놀이단절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0, 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8로 산출되었다. 특히 이들 간접효과는 모두  $p < .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한편



[그림 2]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

\*\* $p < .01$ , \*\*\* $p < .001$ .

주. 실선은 유의미한 경로, 점선은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임.

〈표 5〉 최종모형의 경로별 직접, 간접 및 총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자부심	→ 일상적 스트레스	.09	-	.09
수치심	→ 일상적 스트레스	.19	-	.19
수치심	→ 놀이방해	-	.15*	.15
자부심	→ 놀이방해	-	.07	.07
일상적 스트레스	→ 놀이방해	.76	-	.76
수치심	→ 놀이단절	-	.10*	.10
자부심	→ 놀이단절	-	.05	.05
일상적 스트레스	→ 놀이단절	.54	-	.54
수치심	→ 놀이상호작용	-.13	-.08*	-.21
자부심	→ 놀이상호작용	-	-.04	-.04
일상적 스트레스	→ 놀이상호작용	-.43	-	-.43

모형검증에서 일상적 스트레스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자부심의 간접효과는 매우 미미하여 놀이방해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5, 놀이단절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7, 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4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자부심과 수치심의 영향이 일상적 스트레스를 통해 또래놀이행동의 하위 차원인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놀이방해에 이르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자부심은 이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나 또래와의 놀이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의 수치심 수준이 높을수록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 또한 높아져, 놀이상호작용이 줄어드는 반면 놀이단절과 놀이방해 수준은 높아졌다. 특히 유아의 수치심은 놀이방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수치심 수준이 높아질수록 유아의 놀이방해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의 자의식 정서 중 수치심 수준이 높을수록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심은 어떤 상황이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는 대표적인 부정적 자의식 정서로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 자신의 존재를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 정서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Trumbull(2003)은 수치심이란 대인관계 내에서 타인의 관점에 의해 만들어진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 중 수용하기 어려운 정서를 의미하므로, 수치심을 지각하는 것 자체는 심한 스트레스원이 된다고 보았다. 특히 스트레스는 개인과 자신이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경험하게 된다는 점(Kostelnik et al., 2009), 그리고 유아가 불안하거나 좌절감을 경험할 때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한

다는 점을 기초로 생각해본다면(김선희, 2004), 수치심을 높게 지각하는 개인의 특성 자체가 동일한 스트레스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한 특성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자의식 정서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본인의 태도와 행동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고, 대인간의 문제 해결에 있어 유능감을 발휘하게 할 수 있는 순기능적인 측면과 자기비난에 영향을 미쳐 만족스러운 대인관계의 질을 저해하는 역기능적인 측면 모두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정선영, 1999), 자의식이 포함하고 있는 하위 차원에 따라 적응과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자부심과 수치심 중 수치심만이 일상적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는 심리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부정적 자의식 정서인 수치심이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부적응과 강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청소년 및 성인 대상의 선행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남기숙, 2008; 송수민, 2007; Trumbull, 2003).

그러나 수치심의 또래놀이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놀이상호작용에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놀이방해 및 놀이단절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정적 자의식 정서인 수치심 수준을 높게 지각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위축 성향이 높아진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 중 단절이나 방해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대신 상호작용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청소년이나 성인의 경우 수치심과 같은 고통스러운 정서나 수줍음 등의 내적 특성이 위축과 회피, 단절,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와 연결되는 것과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어린 유아의 경우에는 심리적 문제나 공격 또는 방해와 같은 전형적인 외현적 문제행동으로 발현될 가능성 보다는 또래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치므로, 상대적으로 수치심을 경험하는 수준이 높은 유아의 경우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때 그만큼 개입의 효과 또한 클 것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한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서 또래놀이행동으로의 경로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유아의 놀이상호작용은 감소하는 반면에 놀이단절과 놀이방해는 증가하였다. 유아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대처 방식은 일반적으로 회피나 충동적 행동으로 양분된다. 전형적인 스트레스 대처 행동인 회피는 스트레스 원인과 관계없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나 애완동물, 특정 물건에 관심을 쏟거나 몽상에 빠지기, 허세부리기 등의 행동을 취한다. 충동적 행동은 회피 전략으로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인 불균형에 따른 행동으로, 거친말이나 말대꾸, 고함지르기, 화내기, 기타 공격적인 행동 등을 포함한 자기파괴적인 반응이다(Kostelnik et al., 2009). 이를 기초로 볼 때,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유아 중 회피 전략을 이용하여 소극적으로 스트레스를 표출, 대처하는 유아는 목적 없이 교실을 배회하거나 초점 없는 표정으로 몽상에 잠기는 행동, 쉽게 포기하는 행동 등으로 나타나기 쉬우며, 이는 또래와의 놀이상호작용을 감소시키고, 놀이를 단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스트레스에 대해 적극적·행동적으로 반응하는 유아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특성을 보임으로써, 공격적 행동이나 언어로 표출되어 놀이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 중 하나로서,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의 오차변량 간 공분산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점은 매우 흥미롭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유아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부정적으로 발현하는 문제행동은 크게 놀이방해와 같은 외현화된 문제행동과 놀이단절

과 같은 내면화된 위축행동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유아의 경우 외현화 문제와 내면화 문제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 두 문제행동 간의 체계적인 관계가 없음을 시사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개별 유아가 경험하고 지각하는 스트레스원에 직면하였을 때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와 같은 유아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자부심은 상관분석에서 일상적 스트레스 및 놀이방해와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라는 흥미로운 상관 결과를 보였으며, 유아의 자부심과 수치심은 최종 모형에서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나, 전체 경로에서는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했다. 먼저 자부심과 수치심 간의 상관이 높은 결과는 이차정서에 해당하는 자부심과 수치심이 정서표현의 하위 영역이므로 정서의 표현적 성향이 강한 유아들이 자신이 느끼고 있는 자부심과 수치심에 대한 표현에 대한 빈도와 강도 표현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밝힌 김정민과 유안진(2003)의 설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자부심과 수치심 표현의 수준 차이는 정서성(emotionality)과 같은 유아 개인의 기질적인 정서 발현 특성에 따른 것으로, 자신의 자부심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유아가 수치심 역시 풍부하게 표현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보수적으로 모형을 검정하는 구조방정식의 특성상 일상적 스트레스와 놀이방해 수준이 자부심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함께 높아진다는 자부심의 영향력이 모형검증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기초로 추후 연구의 제언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유아의 자부심과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된 웨슬러 유아지능검사의 ‘토막짜기’ 과제와 ‘미로’ 과제의 경우 과제 자체에 대한 유아들의 흥미도는 높아 전반적인 과제 진행에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해당 과제들 중 ‘미로’ 과제의 경우 난이도상 만5세 유아에게는 급격히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 성공과 실패 조작이 다소 어려웠다. 자부심 및 수치심을 측정하는 선행 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성공과 실패 경험을 조작할 수 있는 과제를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해오고 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과제를 시도하고, 이를 기초로 이차정서를 측정하기 위한 타당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의식 정서인 자부심과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유아가 일대일로 만나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 수행 상황에서 유아가 표현한 정서는 외적 타당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아가 실제 경험하는 정서와 표현한 정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 놀이실 상황에서 실제 유아들이 경험하고 반응하는 이차정서에 대한 관찰 및 평정이 병행될 때, 자부심과 수치심에 대한 타당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소극적 스트레스와 적극적 스트레스의 상관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요인분석 결과 서로 독립된 요인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스트레스원이 새롭거나 어려운 비일상적인 요구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볼 때, 발달상 규준적이거나 일상적인 소극적 스트레스와 그 정도가 심하거나 비일상적인 적극적 스트레스가 인간행동에 미치는 차이는 개념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는 유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극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으

로 생각해볼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의 유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려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의 수치심이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일상적 스트레스가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다양한 정서 영역을 포함시키고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밝혔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고희정 (1997). 유아의 기질과 스트레스 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2004). 한국 유아의 스트레스와 행동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완화요인의 효과. **유아교육연구**, 24(2), 135-159.
- 김수영 (2000). 유아의 또래수용도, 놀이상호작용 및 놀이형태와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0(3), 47-66.
- 김윤희 (2003). 유치원 종일제 유아들의 환경변인별 일상적 스트레스 행동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정민, 유안진 (2003). 과제 난이도에 따른 4세와 7세 아동의 자부심과 수치심 표현. **아동학회지**, 24(6), 33-46.
- 김지현, 박경자 (2006).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외적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아동학회지**, 27(3), 149-167.
- 김평화, 윤혜미 (2014). 아동학대가 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의 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18(4), 601-620.
- 남기숙 (2008). 수치심, 죄책감 경험과 대처가 심리 증상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윤조, 송하나 (2008).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 11, 139-149.
- 박지현 (2014). 청소년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21세기사회복지연구**, 11(1), 121-142.
- 송수민 (2007).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의 심리적 특성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25-144.
- 송정아, 이양희 (2004).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연구. **생활과학**, 7, 189-206.
- 유경, 민경환 (2002). 아동의 도덕적 정서의 발달: 수치심과 죄책감. **심리과학**, 11(1), 53-69.
- 이원영, 손은애 (2006). 만 4세 여아의 또래놀이 참여과정 탐색. **유아교육연구**, 26(2), 237-249.

- 임혜은, 한세영 (2016). 학령후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에가 전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7(4), 129-143.
- 정선영 (1999). 우울감, 자의식 및 사회적 문제해결간의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희숙, 권미주 (2002). 유아의 정서지능과 일상적 스트레스. **영유아보육연구**, 8, 69-78.
- 최혜영, 신혜영 (2011).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또래 놀이행동 척도의 타당화. **아동학회지**, 32(2), 35-52.
- 최혜영, 이은혜 (2005). 아동의 또래상호작용과 교사신념 및 교사행동 간의 관계. **아동교육연구**, 25(5), 319-342.
- 하유미 (1998). 아동의 성, 초기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아동의 정서 표현: 자부심과 수치심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세영 (2015). 성과 연령에 따라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자의식적 정서가 공감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3(5), 581-594.
- 황윤세 (2011). 유아의 놀이특성과 자기조절력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5(4), 99-116.
- Ashton-James, C. E., & Tracy, J. L. (2012). Pride and prejudice: How feelings about the self influence judgments of othe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4), 466-476.
- Belsky, J., Domitrovich, C., & Crnic, K. (1997). Temperament and parenting antecedent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hree year old boys' pride and shame reactions. *Child Development*, 68(3), 456-466.
- Bohnert, A. M., Crnic, K. A., & Lim, K. G. (2003). Emotional competence and aggressive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1), 79-97.
- Burts, D. C., Hart, C. H., Charlesworth, R., & Kirk, L. (1990). A comparison of frequencies of stress behaviors observed in kindergarten children in classroom with developmentally appropriate versus inappropriate instructional practic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3), 407-423.
- Cheng, J. T., Tracy, J. L., & Henrich, J. (2010). Pride, personality, and the evolutionary foundations of human social status.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31(5), 334-347.
- Coolahan, K., Fantuzzo, J., Mendez, J., & McDermott, P. (2000). Preschool peer interactions and readiness to learn: Relationships between classroom peer play and learning behaviors and conduc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3), 458-465.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 Fantuzzo, J., Sutton-Smith, B., Coolahan, K., Manz, P. H., Canning, S., & Dehnam, D. (1995). Assessment of preschool play interaction behavior in young low-income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1), 105-120.
- Fantuzzo, J., Coolahan, K. C., Mendez, J., McDermott, P., & Sutton-Smith, B. (1998).



- Contextually-relevant validation of peer play constructs with African American Head Start Children: Penn interactive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1), 105-120.
- Fantuzzo, J., & Mcwayne, C.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play interactions in the family context and dimensions of school readiness for low-income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4(1), 79-87.
- Fromberg, D. P. (2002). *Play and mean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Boston, MA: Ally and Bacon.
- Geoffroy, M., Cote, S. M., Parent, S., & Seguin, J. R. (2006). Daycare attendance, stress, and mental health.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1(9), 607-615.
- Geppert, U., Schmidt, D., & Galinowski, I. (1997). *Self-evaluative emotions coding system (SEECES): Technical manual*. Munich: Max-Planck-Institute for Psychological Research.
- Guralnick, M. H., & Groom, J. M. (1987). The peer relations of mildly delayed and nonhandicapped preschool children in mainstreamed playgroups. *Child Development*, 58(6), 1556-1572.
- Kirschbaum, C., Steyer, R., Eid, M., Patalla, U., Schwenkmezger, P., & Hellhammer, D. H. (1990). Cortisol and behavior. *Psychoneuroendocrinology*, 15(4), 297-307.
- Kostelnik, M., Whiren, A. P., Soderman, A. K., & Gregory, K. M. (2009).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and learning, *영유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교육* (박경자, 김송이, 권연희, 김지현 옮김). 서울: 교문사(원판 2009).
- Krohne, H. W. (2002). *Stress and coping theories*. Retrieved November 2, 2016 from [http://userpage.fu-berlin.de/schueez/fohlen/Krohne\\_Stress.pdf](http://userpage.fu-berlin.de/schueez/fohlen/Krohne_Stress.pdf)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 Lewis, M., Alessandri, S. M., & Sullivan, M. W. (1992). Differences in shame and pride as a function of children's gender and task difficulty. *Child Development*, 63(3), 630-638.
- Mayer, J. D.,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mplications for educators* (pp. 3-31). NY: Basic Books.
- Mason, J. W. (1971). A re-evaluation of the concept of 'non-specificity' in stress theory.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8, 323 - 333.
- Mason, J. W. (1975). A historical view of the stress field: Part II. *Journal of Human Stress*, 1(1), 22-36.
- Raver, C. C., & Zigler, E. F. (1997). Social competence: An Untapped dimension in evaluating Head Start's succes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4), 363-385.
- Salovey, P., Stroud, L. R., Woolery, A., & Epel, E. A. (2002) Perceived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reactivity, and symptom reports: Further explorations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Psychology and Health*, 17(5), 611-627.
- Stipek, D., Recchia, S., & McClintic, S. (1992). Self-evaluation in young children. *Monographs of the*

-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7(1), 1-95.
-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NY: Guilford.
- Thomaes, S., Stegge, H., & Olthof, T. (2007). Externalizing shame responses in children: The role of fragile-positive self-esteem. *Developmental Psychology*, 25(4), 559 - 577.
- Tracy, J. L., & Robins, R. W. (2004). Putting the self into self-conscious emotions: A theoretical model. *Psychological Inquiry*, 15(2), 103-125.
- Tracy, J. L., & Robins, R. W. (2007). The psychological structure of pride: A tale of two face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3), 506-525.
- Tracy, J. L., Robins, R. W., & Lagattuta, K. H. (2005). Can children recognize pride? *Emotion*, 5(3), 251-257.
- Trumbull, D. (2003). Shame: An acute stress response to interpersonal traumatization. *Psychiatry*, 66(1), 53-64.
- Verkuyten, M. (2002). Ethnic attitudes among minority and majority children: The role of ethnic identification, peer group victimization and parents. *Social Development*, 11(4), 558-570.
- Vermeer, H. J., & van Ijzendoorn, M. A. (2006). Children's elevated cortisol levels at daycare: A review and meta-analysi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1(3), 390-401.

논문투고: 16.12.15  
수정원고접수: 17.01.23  
최종게재결정: 17.02.04